

『The Linux Programming Interface』(한국어판 제목: 『리눅스 API의 모든 것』) 한국 독자 여러분께 인사를 전합니다.

『리눅스 API의 모든 것』은 리눅스 시스템 프로그래밍 API를 거의 모두 설명한 책으로서 전통적인 서버, 메인프레임, 데스크탑 시스템부터 근래 리눅스를 사용하는 임베디드 디바이스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리눅스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리눅스 커널이 안드로이드의 심장부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책 내용의 대부분은 안드로이드 디바이스상의 프로그래밍에도 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영문판이 2010년 말에 출간된 이후로, 9개의 새로운 리눅스 커널 버전이 릴리스됐습니다(버전 2.6.36부터 3.4까지). 그럼에도 영문판과 이 한국어판의 내용은 여전히 최신에 가깝고, 앞으로도 수년간 유효할 것입니다. 그 주된 이유는 리눅스 커널의 개발이 매우 빠르지만, 커널-사용자 공간 API의 변경 속도는 매우 느리기 때문입니다(이는 커널이 사용자 공간 응용 프로그램의 ‘안정적인’ 기반을 제공하도록 설계된다는 사실의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최근 9개의 커널 버전을 보면, 커널-사용자 공간 API의 변경은 비교적 적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발생한 변경들도 이 책에 설명된 기존 기능의 ‘수정’보다는 이 책에 설명된 인터페이스에 ‘추가’되는 형태를 띠니다(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는 커널 설계 과정의 자연적인 결과로, 리눅스 커널 개발자들은 ‘기존’ 사용자 공간 API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 엄청나게 애씁니다). 궁금한 독자들은 저의 웹사이트 http://man7.org/tlpi/api_changes/에서 영문판이 출판된 이래의 사용자 공간 API 변경사항(영문으로 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어판 독자들은 영문판과 한국어판 사이에 약간의 구조적인 차이가 있음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영문판이 한 권으로 출간된 반면, 한국어판은 한국어로 옮기는 과정에서 책의 분량이 늘어난 이유 때문에 부득이하게 두 권으로 출간된 점입니다. 그 과정에서 몇몇 장들의 순서가 약간 바뀌었습니다. POSIX 스펙트를 설명한 5개의 장은 뒤쪽으로 이동하여 한국어판 2권(Vol. 2)의 첫 장들로 구성됐습니다(두 권으로 나눌 경우, 저와 에이콘출판사는 이렇게 순서를 바꾸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서로 동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쓴 책이 다른 언어로 번역되는 것은 제게는 크나큰 영광입니다. 제 책의 번역 작업이 각국에서 현재 진행 중이지만, 한국어판이 세계에서 최초로 출간되는 번역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1,5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원서를 번역하는 일은 대단한 과업입니다. 멋진 번역을 만들어낸, 부지런하고 빠르게 작업해준 출판사와 번역 팀에게 감사합니다. 저의 작업물과, 이 책을 옮겨준 번역 팀의 좋은 글과, 영문판에 도움을 준 여러 관계자분들의 노고가 한국어판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12년 6월 독일 뮌헨에서
마이클 커리스크